

기술 개발의 과실을 수확하는 해

한전기공(주)

한 전기공(주)는 지난 97년 제 한된 여건 속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룩함은 물론, 노사간 한마음을 기초로 하여 정비 기술 및 품질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렸으며, 회사의 위상과 신인도를 크게 높인 보람된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올해는 한전기공(주)가 20여년 동안 힘들여 쌓아 온 활력과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고, 험난한 경영 환경과 위기를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영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부문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미래 지향적이고 공동 운명체로서의 노사 협력 관계를 확고히 하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구·기술개발 및 품질역량 강화

한전기공(주)는 98년 새해를 '중장기 기술 개발 본격 추진 및 개발 성과 수확의 해'로 설정, 이의 실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97-2차 기술개발촉

진대책회의 본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중장기 기술 개발 6대 과제 및 연구 개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정밀 진단 기법 및 해석 평가를 비롯한 제어 계통 정비, 그리고 기술 정보 관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술 등의 본격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구 개발 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기술개발실 중심에서 전사적 체계로 전환시키는 물론, 산·학·연 공동 연구 체제도 강화하여 학계 및 타 연구 기관과의 협력으로 자체 연구 능력을 향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연구 개발비를 증액 투자하고 원자력 장수명화 연구와 원전 기술 고도화 연구 용역 수주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협동 연구 등도 고려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 개발 결과가 도출되는 초기 연도인 98년에는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개발 기술의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전기공(주) 고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중인 제안 제도 운영, 산업 재

산권 출원 및 전국 사업소의 기술 개발 과제 수행 사업도 강화해야 할 분야이다. 98년도 산업 재산권 출원 목표를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 경쟁 시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 3개 사업장에서 획득한 ISO 9002는 회사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에는 기인증 사업소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계측 제어 분야의 ISO 9002 인증 획득과 송변전 사업 및 신규 사업 분야에도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작년 전국품질본임조정위원회에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에도 분임 활동 활성화를 통해 업무를 꾸준히 개선·발전시키고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장 방지 제로화 및 사업 다각화 추진

국내 원자력 발전 설비는 올 6월 말이면 월성 3호기와 울진 3호기가 각각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어, 한전기공(주)가 수행하게 되는 경

상 정비 대상 설비 역시 총 14기에 12,016MW가 되어 전년 대비 16.5%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설비의 완전 정비에 대한 한전기공(주)의 책임 역시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예방 점검 정비의 내실화, 인적 실수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하여 고장 방지 제로화에 한전기공(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경상 예방 정비 공사, 계획 예방 정비 공사 및 시운전 정비 공사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의 확대, 개보수 공사의 확충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2% 이상의 매출 신장에 과감히 도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전기공(주)의 정비 기술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은 저비용 고효율로, 정비 운영은 기술 집약 중심으로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다. 또한 올해 원자력 10개 호기의 계획 예방 정비 시공에 있어서는 공기 준수는 물론 발전소별 합의에 의한 공기 단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작년에 발족한 원자력정비기술센터의 조기 정상화도 올해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기술 개발 및 소화 촉진, 특화 사업 및 엔지니어링 사업 개발을 통한 외국인 용역의 점차적 축소, 그리고 분야별 엔지니어링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도의 원자력 발전 정비 기술 메

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기공(주)가 제3회 원자력 안전의 날 행사에서 원자력 설비의 안전성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은 성과를 거두삼아, 올해에도 모든 설비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설비 안전에 작은 오차도 없이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는 것 또한 최대 목표의 하나이다.

고품질의 정비 서비스 및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을 전개하여 고객에 만족을 주는 한편,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설비 이외의 일반 산업 설비, 그리고 향후 민자 발전소에 대한 정비 참여까지 기획·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토건 시설물 유지 관리 사업은 현재 수행중인 수화력 발전소 토건 시설물 및 개보수 공사는 물론 신규로 원자력 분야와 공공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 올해는 토건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 해로 장식할 계획이다.

또 지난 95년 설립되어 기반을 확고히 닦고 있는 가스터빈정비센터도 올 10월 로터숍 건설이 준공되면, 가스 터빈 정비에 있어 토털 서비스 체제를 갖춰, 국내외 서비스는 물론 외화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

해외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O/H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외 인도네시

아·캄보디아·인도 등지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지속 추진하여 작년도 실적을 배가하며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정예 요원 육성과 함께 해외 발전 사업체, 국내 발전 설비 제작사 및 해외 EPC 업체와 지속적인 협력, 그리고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수주 정보 수집 및 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월성 2·3호기 가동전 검사(PSI)의 성공적 수행으로 한전기공(주)가 비파괴 검사 분야의 획기적인 장을 연데 이어 월성 1·2호기 가동중 검사(ISI)까지 수주를 하게 되어 이 분야에 대한 희망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만족치 않고 여기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월성 1·4호기의 가동전 검사도 순수 자립 기술을 활용, 독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수해 경험을 바탕으로 경수로형 원전의 가동중 검사의 수주에도 전력을 다함은 물론, 고부가 가치 업무의 창출로 사업 영역 확대,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도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올 98년도는 우리 한전기공(주)의 4,700여 전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IMF 한파 속에서도 '전력 설비 책임 정비'라는 막중한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가운데, 알찬 경영 성과까지 기대하는 내실 경영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다. ☞